

시즌3 - 7호 | 시편 136편 ~ 잠언 3:12

PEACE CHURCH

HAPPY MEAL K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 입니다.

해피밀 시즌 3-7호를 발간하며, 여전히 "할렐루야"를 외쳐봅니다.

살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매일 똑같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연장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있습니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참 부족한 나날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의의 열매까지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크리스마스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주인공되지 못하는 성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자비가 짙은 눈보라 속으로 가리워지는 문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나갔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단어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비본질에 집중하게 함으로 종교생활, 문화생활로 우리의 모습을 전락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붙들며 20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임마누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내가 만든 신과의 동행이 아닌,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 분과의 동행입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그 분과의 동행입니다. 2025년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합시다. 기도함을 놓치지 맙시다.



2025년 1월 해피밀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작년 6월 우리는 시편 1편으로 시작하여, 지금 마지막 시편에 도착해있습니다.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부터 시작하여 149편에 이르기까지 시편기자는 삶의 다양한 계절 속에 놓여있었습니다. 눈물, 애환, 억울함, 환난, 빈곤, 박해, 고난, 기쁨, 승리, 위로, 종만의 시편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절의 끝에 시편기자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시편 145-150편은 ‘할렐루야 전집’으로도 잘 알려져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계절 속에서도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2025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Paul Jung'.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두고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맥아피 신학교의 낸시 스크라이세-왈포드 교수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과거를 현재로 힘 있게 가져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다. 보존하신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NICOT 시편)”**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지난 주일에 들었던 "크리스마스의 본질" 설교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특히 신앙의 성장이라는 측면을 주목해봅시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누군가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일상의 어려움, 업무상의 문제, 가정의 불화 등 수많은 문제 때문이지는 않으신가요?

136편 10-22절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때 당시 이스라엘은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이집트를 떠나야 했고, 낮선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해야 했으며, 강대한 대적들과 전쟁해야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늘 그들에게 한결 같이 함께 하셨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변함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한 해를 보냈더라도 그분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도록 힘 있게 도우십니다. 그분의 모든 도우심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가장 깊이 사랑하도록 합니다. 만약 우상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나의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묵상하며 이 연말을 보내봅시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NICOT 주석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Q.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혈어 버리라 혈어 버리라 기초까지 혈어 버리라 하였나이다 8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9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분노와 슬픔을 달래는 비결**

슬픔을 완벽히 달래는 여러분만의 비결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 시편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37편은 바벨론 포로기의 슬픔이 담긴 시편입니다. 화자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옛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슬픔을 견디는 그들만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부수고,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들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이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잠재우는 데에도 과연 효과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본문 속 유대인의 모습을 가리켜 천국을 갈망하는 신자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으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 본향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죄가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박해나 여러 문제로 인해 고통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여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든 그것을 넘어서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견뎌내셨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136편의 은혜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소망으로 모든 걸 이겨내신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분노와 슬픔을 달래는 유일한 비결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본문 속 유대인들은 어떻게 슬픔을 달래고 있나요?

Q. 올 한 해 여전히 달래지지 않는 슬픔이나 분노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해봅시다.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며 5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을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모든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 우상이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 하는 것.”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의 예배보다 자녀의 학업이나 진로를 위한 활동 등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형통함은 주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우상의 정체는 학업이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부모의 가장 큰 우상은 자녀의 형통함이라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우리를 늘 허망함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 다윗은 모든 신들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모든 신이란,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선한 것들을 주셨고, 바라지 않았던 것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올해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분은 비교 불가하신 분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가리켜 무어라 정의하나요?

Q.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었나요? 2025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13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작은 모래사장을 치고 돌아가는 파도를 보면서 뭐라고 외치나요? “와, 바다에 왔다!”라고 하지 않나요? 물론 누구도 파도가 바다의 전 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깊은 심해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바다는 넓고 깊습니다. “안다”는 개념도 바다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해 “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을 경험할 때에도 “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어디까지 아실까요? 8절은 우리가 하늘과 스올에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합니다. 13절은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보셨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2025년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들, 연휴에 세운 계획들을 점검해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계획 혹은 세우고 싶은 목표 등을 살펴봅시다. 그 안에 주님을 위한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막연히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되겠다고만 생각하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모두 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이 오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무 계획이 없거나 또는 적당히 봉사하면서 내가 진 빚을 갚으려는 행위는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오. 교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2025년을 채워가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Q.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안과 용기를 주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12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13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의인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며칠 전 교역자 사무실에 경찰관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교회에 경찰이 온다는 게 무척 어색한 일이라 조금 놀랐지만,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여쭙었습니다. 용무는 화장실 이용이었습니다. 조금 웃음도 나고 허탈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흉악한 범법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묻지 않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경찰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다윗 스스로가 결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해피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상황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에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눈감아주시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의 편에 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심히 커다란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은 믿음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편에 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14절**(“**그들의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문 속 악인과 같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본문 속 다윗이 말하는 죄악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종교인으로부터 온갖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횡포로 인해 십자가에 못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아시고도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시나요?

온 가족 <시편 138편> 묵상하기

1. 시편 138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을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
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3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었으며 5 그
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
를 아심이니이다 7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2. 시편 138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수요일 해피인사이트'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138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음 बात을 사십시오!

-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 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 5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나의 입술을 주관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속히 내게 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는 아주 다급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다급할 때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의 기도를 깊이 묵상해보면 참 아름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기도와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와 제물과 같길 소원합니다(2절). 그러므로 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말을 곱게 골라가면서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도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타인으로부터 당할 때마다 본인도 똑같이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그는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해주시고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먼저 그는 악인들과 어울리 않겠다고 고백합니다(4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자신도 똑같이 입술이 더럽혀질 것을 주의했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그에게 옳은 말을 하는 의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순간, 나는 자꾸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며 잘못된 길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요즘 나의 언행은 어떠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Q.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위하여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들과 멀리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 1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 2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 3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 4 오른쪽을 살펴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 5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 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 7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오직 그분 앞에 엎드리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소리 내어 부르짖는다고 두 번이나 강조하며 고백합니다(1-2절). 그만큼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지라도 그는 결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도움의 손길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2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나 억울해서 통곡하며 울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며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는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다윗의 충성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나는 무엇과 타협하며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에게 엎드리고 있습니까?

Q.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의심치 않겠다 다짐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엮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5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6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7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8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그 누가 무죄를 주장하리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린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난날 실수하고 잘못된 결과로 인하여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못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은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겪고 있는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죄악들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Q. 교만함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할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처럼 되고자 교만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 여호와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5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6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흠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7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8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10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11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주님 편이기에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던 골리앗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여, 여호와와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던 다윗을 모습을 그려놓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2절). 그분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겉보기엔 별로 대수롭지 않던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으며, 다윗은 그 기적을 또 노래로 고백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3~1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다가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15절).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편이기에 결코 용납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겨지시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먼 훗날 주 앞에서 나는 '주님만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1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4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5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7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8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11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2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그 이유는 여호와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3절).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무소부재 하시기에 위대하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기에 위대하십니다. 영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변하십니다. 즉 진리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7~8절). 불변하신 약속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 중에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Q.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목상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임 없이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11일 (토)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144편> 색칠하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으로 색칠하는 하루

시편 144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함께 다짐해요.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정의로 심판하시며

오늘 시편에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9절까지는 정의의 요체가 설명됩니다. 먼저 정의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처벌을 뜻합니다. 또한 정의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억울하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이라는 병자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을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하는 정의실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은 본래 정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들을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바쁜, 정의롭지 못한 본성을 지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정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곁에 선 무정의한 자가 됩니다. 심판의 대상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자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정의를 행하는 동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 감격 말입니다. 그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흥분하여 찬양하고, 소스라치게 예배하는 그 감격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흥분에 가득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일어나는 그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5절 말씀 또한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머리와 피상적 공상으로 있는 것은 우리를 흥분케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인격적으로 사무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현재 나의 삶에 정의가 실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누어보세요.

Q. 정의롭지 못했던 나를 대신해 정의의 심판 대상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시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우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8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3번 할렐루야를 외치며 예배할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의 어원을 탐구해보면, '할랄'와 '야훼'의 합성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할랄은 무언가를 자랑하다, 자랑스러워 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삶을 살아갑니다. SNS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때로는 읽었던 재미난 책을 자랑거리로 삼아 열썬 열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성취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철학을 자랑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접근하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소개하듯, 하나님을 누군가에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SNS에 올린 음식 사진 뿐만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마음마저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의 예배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자비와 그 분의 능력과 그 분의 위대하심과 그 분의 지혜와 그 분의 정의로움과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진정한 속내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분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로 인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의 성품 그 자체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동업자들간에는 한 목표를 두고 회의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성품, 성향에 대한 찬가는 재쳐둡니다. 그러나, 연인들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함으로 만족하고, 그 상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자랑함으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바쁘진 않습니까? 나의 바램에 대한 기도가 가득차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노래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할렐루야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나의 기도제목은 어떠한 기도제목인가요?

Q. 우리의 사랑되신 그 분의 어떠하심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1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5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의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라 6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7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모든 것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의 창조주되심으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해야 함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천사, 군대, 해, 달, 별, 하늘, 궁창 이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7-12절 말씀은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용, 바다,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새,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5절에 말하고 있는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제주의라고 하는 반틸의 유명한 변증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창조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논리도 그 논리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법칙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물질의 모든 양력과 공간 및 진동과 울림도 하나님의 창조법칙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보며, 갓난아기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겨우 겨우 아버지의 뺨을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논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받쳐주지 못하면 작은 아기가 아버지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비판과 공격도 하나님의 받쳐주심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그 분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전혀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모든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희노애락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 공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하신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목적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며 경영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다'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물질, 에너지까지 다 적자면 한량없이 적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 삶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지 못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Q. 오늘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만남, 물질과 에너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계획해보세요.

[시149:1-9]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3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7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149편은 또 다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46~150편은 할렐루야 송시로 알려져있으며, 시편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마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48편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찬양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은 그러한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매우 개인적으로 접근해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분이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9편은 이스라엘의 전쟁시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6-9절 말씀에는 양날 검이 등장하며, 철고랑과 사슬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가운데 승리의 주역으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항상 그러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패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참된 왕으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매우 개인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개인적 만남의 사건으로 결속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왕들과 같이, 우리도 인생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거둬나게 하시며,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삶에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다가오신 그 분과 인격적인 사귀를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Q. 오늘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1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3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 소고 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5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심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우리는 시편의 제일 마지막 노래에 도착해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중심 주제는 단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할렐루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시편 제 1편의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의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149편까지는 수 많은 철(계절)이 지나왔습니다. 어떤 계절은 슬픔의 계절이었고, 어떤 계절은 분노의 계절이었고, 어떤 계절은 실망과 낙심의 계절이었고, 어떤 계절은 승리의 계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편 이야기들을 보노라면 우리의 인생을 멋진 파노라마도 한되 엮어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슬픔, 실망, 불확실,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모든 이야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노래를 보십시오. 결국 "할렐루야,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시편의 구조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충분히 멀리 추구하면 찬양이 됩니다. 아무리 절박한 기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경험이라 할지라도 모든 기도는 결국 찬양으로 끝납니다. 항상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평생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끝은 항상 찬양입니다."

모든 기도는 충분히 멀리 추구하면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불확실, 눈물, 염려의 한 계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결국 모든 계절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분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없었으며, 실수는 한올도 찾아볼 수 없고, 역린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씨로 뿌려져, 기쁨의 이유가 되어졌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시편 1편의 확신에 찬 증언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뜨겁고, 차갑고, 시리고, 쓸쓸하고, 따뜻한 인생의 모든 계절을 지나가시며 주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국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고백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최근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Q. 충분히 멀리 추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뢰의 고백을 적어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150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150편,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150편 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BINGO! 빙고타임! 시편 150편을 읽으며 기억에 남는 단어를 골라 3x3 빙고를 완성해보세요.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하심을 받자.

1. 1월 17일 해피밀을 읽어주세요.
2. 최근 인생에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으신가요?
3.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가정예배 가운데 나누어보세요.

4.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인생의 계절 속에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힘과 능력 또 확실함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호흡이 주님을 노래하는 호흡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철에 따라 열매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6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감독자 여호와 하나님**

한 드라마에 입문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점들을 고려하시나요? 홍보영상들을 보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배우들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를 보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독을 보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독이라면 배우, 스토리, 장르 불문하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었을 것이야. 이 건 꼭 봐야 해!’ 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을 통해 우리는 드라마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 담긴 대사들, 중요한 단서들, 인물 관계 등을 우리의 관점, 해석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그 감독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감독을 통해 드라마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 감독이라면 이러한 의도로 이 장면들을 연출했을 것이야. 대박이다!’

겨우 드라마 하나에도 감독의 의도들이 보이는데 각 사람들의 거대한 인생 드라마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분명 더욱 명확하고 멋진 인생의 감독자 하나님의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감독자이십니다.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입니다(1:7, 9:10). 우리의 창조자, 감독자를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지으신 의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모든 의도들을 두렵고 떨림(경외)으로 이해하고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창조자 아래 살면서 그를 거부하는 인생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지혜의 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향한 구원 계획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거나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고전 1:18-20).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지혜를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좋아하는 드라마 감독이 있나요?

Q. 선하시고 완벽한 인생의 감독자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했던 경험이 있나요?

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10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찢더라도 따르지 말라 ... 15 내 아들이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16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17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 그들이 가만히 었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19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돈보다 예수님

우주로 여행을 가지 않으면 인간은 평생 달의 반대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달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은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고 우리를 지혜로운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반기를 들기 바쁩니다. 시대착오적인 교훈이라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부모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금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악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더욱 많은 보화를 위해 피 흘리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취하자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지혜로운 부모님은 '따르지 말라, 다니지 말라, 밟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함정은 결국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함정은 의로운 자들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배가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인생은 죄로 인해 파멸해질 것이며, 양심은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만히 었드리던 자들은 예수님의 때에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은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보다 예수라는 지혜를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돈을 쫓으려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Q. 돈만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 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속히 믿어요!**

인터넷과 AI가 발전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지혜를 얻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얻고자 하는 지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에도 지혜는 존재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나무껍질에 써서 전해지기도 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으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1절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과 성 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나열된 장소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나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지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귀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귀를 열지 않는 자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그들에게 지혜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그들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현 상태를 기뻐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지혜를 싫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지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재앙이 폭풍 같이 임하여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그 때에 나를 부르더라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얻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지혜를 찾더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심에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문 두드려주시고 지혜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귀를 열고 지혜를 영접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Q.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 20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 21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값 없이 주신 지혜**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고, 늦지 않게 버스를 타고, 향긋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의 모든 일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신체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2장의 주제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 중 핵심 구절은 5절일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모든 이들은 결국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인격적 관계를 맺음)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갈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많고,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모든 것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패역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설명처럼 지혜 또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직,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반응하는 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예정된 자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힘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인의 길을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지혜를 사모하지 않고,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제 우리에게 보내지셨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모시며, 지혜를 들은 자처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낀 적이 있나요?

Q.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얻는 지혜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그리하면**

누군가와 약속을 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약속을 맺기 위해서는 수준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속하기 위해 내가 이거 줄게, 계약을 맺기 위해 담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약속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약속을 성립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하신 우리의 간극을 매우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그리하면” 사이에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킬 때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진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면 우리의 창고는 가득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그리하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1-12절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훈육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누군가와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Q. 조건 없이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한 번 나눠보세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잠언 3장> 먹기

가정에배 미니홈피

- 1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2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3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 4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